

## 기독교 대학생 3명 중 2명, '비혼동거 찬성'!

최근 한국의 가족 변동 주요 양상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 범위의 확대, 만혼의 보편화와 비혼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법률혼이 아닌 비혼동거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형태가 급속히 약화되고, 비혼 증가에 따른 저출산도 문제가 됨에 따라 기존의 법률혼 중심의 가족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비혼동거가족 대상의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결과가 변화하고 있는 가족 형태를 파악하는 한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번 넘버즈에서 다루게 되었다.

주목할만한 결과로는 비혼동거자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전통적인 가치관과 거리가 있었으며 우리 국민 3명 중 2명(65%)이 비혼동거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점이다. 이러한 풍조는 기독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학원복음화협의회의 대학생 조사(2022)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대학생의 비혼동거 찬성률이 64%로, 이제 비혼동거가 더 이상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닌 시대가 된 것 같다.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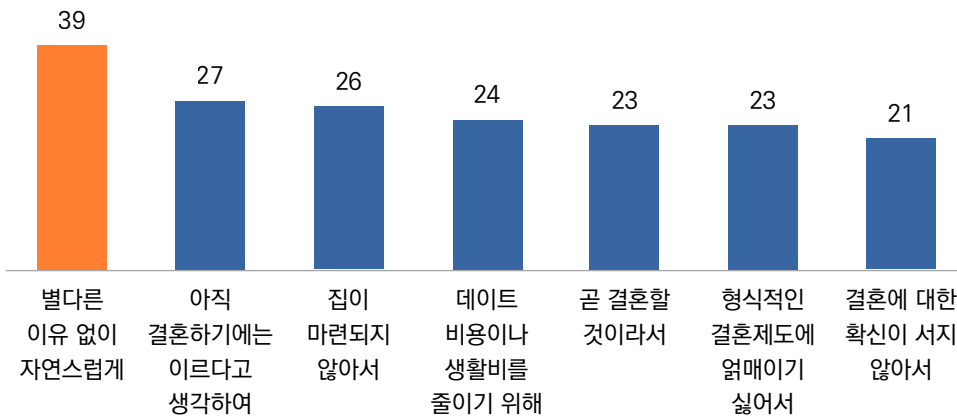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01

## [비혼동거 실태] 비혼동거 이유, '남녀 간 자연스러운 현상'!

- 현재 비혼동거자들을 대상으로 비혼동거를 하는 이유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를 39%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여' 27%,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26%, '데이트 비용이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24% 등의 순이었다.
-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가 가장 많이 응답된 점은 이성 간의 자연스럽게 본능적인 욕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시대적 흐름에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그림] 비혼동거 사유 (비혼동거자, 1+2+3순위,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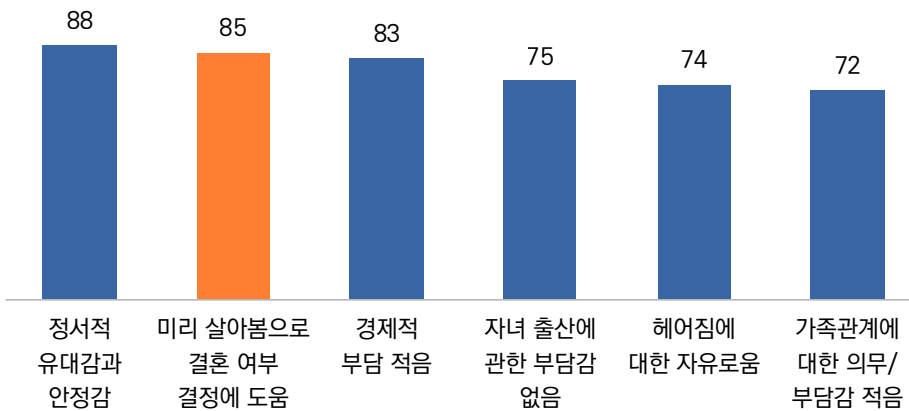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1.05. (만 19~69세 현재 비혼동거자 1,022명, 온라인 조사, 2020.10.12.~11.06.)

## 비혼동거의 장점, '미리 살아봄으로 결혼 여부에 도움 된다' 85%!

- 동거의 긍정적인 면이 무엇인지 묻은 결과,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 88%, '미리 살아봄으로 결혼 여부 결정에 도움' 85%, '경제적 부담 적음' 83%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가족 관계에 대한 자유로움 이유 등이 뒤를 이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결혼이 주는 유익 중 하나인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은 누리면서 경제적, 관계적 부담 등은 줄일 수 있다는 게 비혼동거의 장점인 셈이다.

[그림] 비혼동거의 긍정적인 면 (비혼동거자,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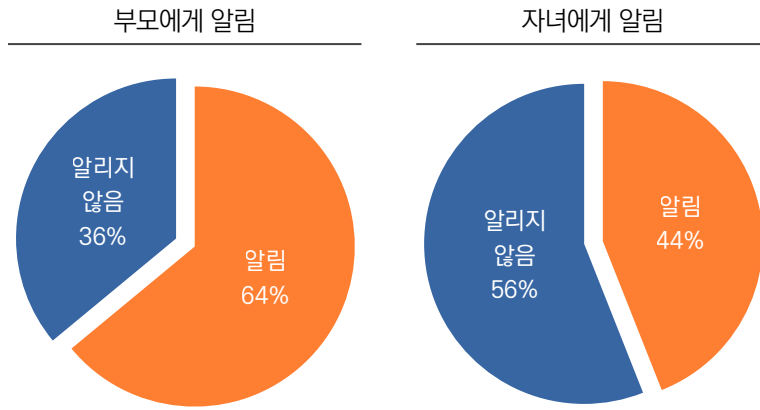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1.05. (만 19~69세 현재 비혼동거자 1,022명, 온라인 조사, 2020.10.12.~11.06.)

## 비혼동거자 3명 중 2명, 부모가 비혼동거 사실 알고 있어!

- 비혼동거자들은 자신들의 비혼동거를 부모 혹은 자녀 등 가족에게 얼마나 알고 있을까? '부모'에게 알린 경우가 64%, '자녀'에게 알린 경우는 44%로 비혼동거자 3명 중 2명은 부모가 비혼동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비혼동거에 대한 가족 알림 여부 (해당 가족이 있는 비혼동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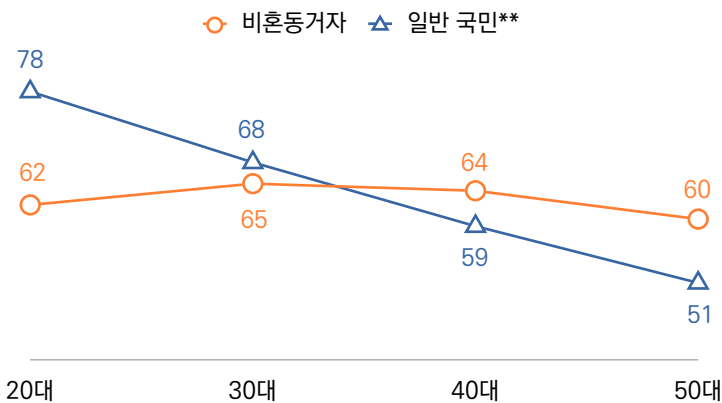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1.05. (만 19~69세 현재 비혼동거자 1,022명, 온라인 조사, 2020.10.12.~11.06.)

## 비혼동거자의 파트너 만족도, 연령별 큰 차이 없어!

- '비혼동거자의 파트너'와 '일반 국민의 배우자'의 관계 만족도를 연령별로 비교해서 살펴본 결과 일반 국민이 배우자를 만족하는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비혼동거자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6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동거인(배우자 vs 파트너) 관계 만족도 비교 ('매우+대체로 만족' 비율\*, %)



※출처 : 여성가족부,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1.05. (만 19~69세 현재 비혼동거자 1,022명, 온라인 조사, 2020.10.12.~11.06.)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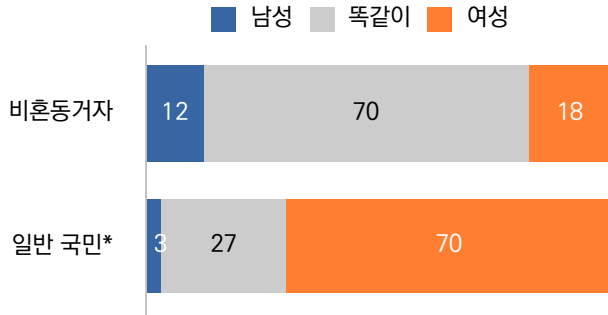
\*\*2020년 가족실태조사

Note) 비혼동거자의 60대 표본 수가 적어 그래프에서는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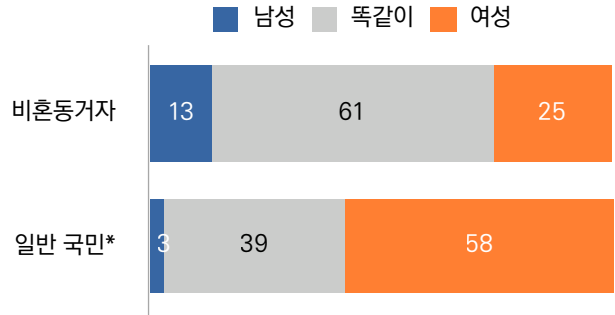
## 비혼동거자의 가사와 자녀 돌봄, 일반 국민보다 훨씬 남녀 평등!

- 가사와 자녀 양육·교육은 주로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가사노동(시장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 분담은 70%가 '똑같이'라고 응답했고, 자녀 양육/교육 분담 역시 '똑같이'가 61%로 가장 높았다.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돌이 똑같이' 하는 비율은 비혼동거자가 압도적으로 높아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가사 수행 분담 비교 (%)



[그림] 자녀 양육/교육 분담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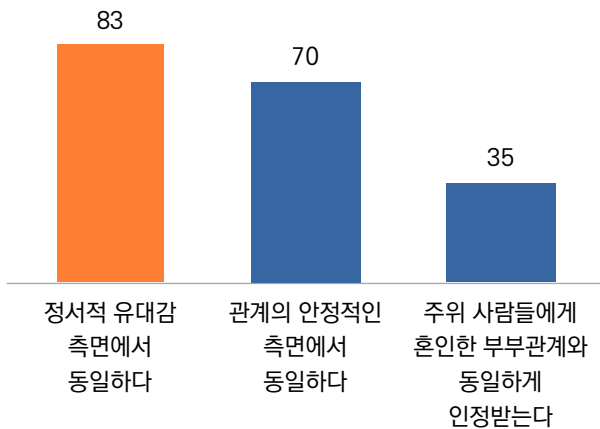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1.05. (만 19~69세 현재 비혼동거자 1,022명, 온라인 조사, 2020.10.12.~11.06.)  
\*2020년 가족실태조사

## 비혼동거자, '실제 부부와 정서적 유대감, 관계 안정성에서 동일!'

- 비혼동거자에게 법률혼 관계인 실제 부부와 동일한 관계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묻은 결과, '정서적 유대감 측면'(83%)과 '관계의 안정적 측면'(70%)에 대해서는 동일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 '주위 사람들에게 혼인한 부부관계와 동일하게 인정받는다'에 대해서는 35%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실제 부부가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있지만 사회적 시선으로부터는 아직 인정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법률혼 부부와 동일 관계 인식 (비혼동거자,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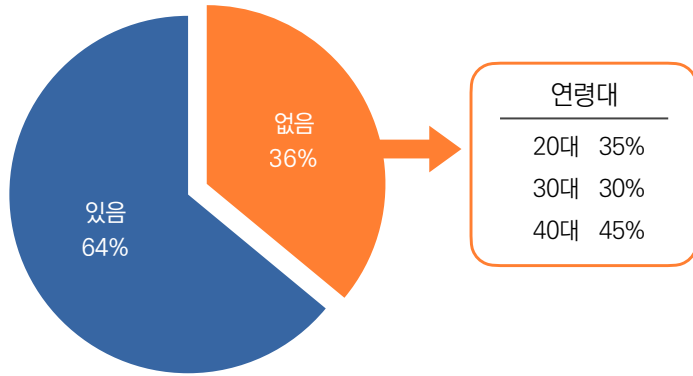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1.05. (만 19~69세 현재 비혼동거자 1,022명, 온라인 조사, 2020.10.12.~11.06.)

## 비혼동거자 3명 중 1명 이상, 현재 동거인과 결혼 계획 없어!

- 향후 현재 동거 중인 파트너와 결혼 의향에 대해서는 ‘없음’ 36%, ‘있음’ 64%로 비혼동거자 3명 중 2명만이 법률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법률혼 의향 없음’ 비율을 보면 40대가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대 비혼동거자의 절반 가까이는 현재 파트너와 결혼 의사가 없는 셈이다.

[그림] 향후 현재 파트너와 결혼 의향 (비혼동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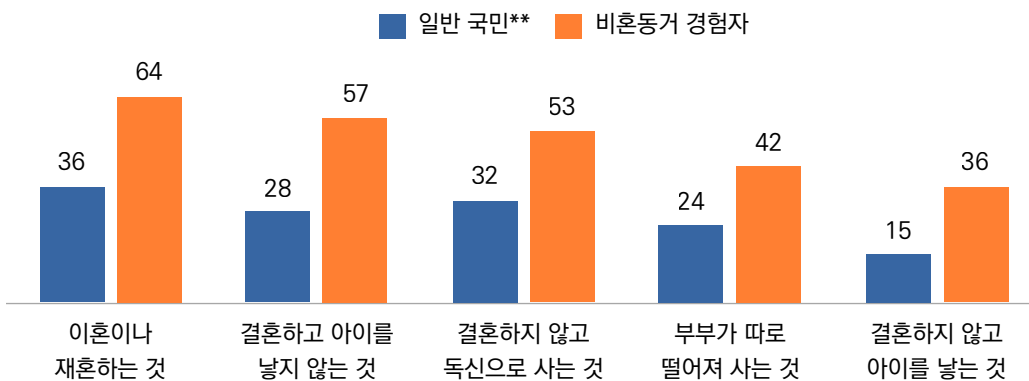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1.05. (만 19~69세 현재 비혼동거자 1,022명, 온라인 조사, 2020.10.12.~11.06.)

## 02 [비혼동거자 vs 국민 인식] 가족에 관한 비혼동거자의 가치관, 매우 개방적!

- 가족에 관한 비혼동거자들의 가치관을 살펴보았다. ‘이혼이나 재혼’을 비롯하여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서 모두 50%대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고,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직장 등으로 주말부부 제외)’, ‘비혼출산’에서도 각각 42%, 3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혼동거자들은 일반 국민 대비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 등의 항목에서 크게 높아 전통적 가족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족관에 보다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결혼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동의율 (‘매우+대체로 동의’ 비율\*, %)



※출처 : 여성가족부,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1.05. (만 19~69세의 비혼동거자 또는 경험자 3,007명, 온라인 조사, 2020.10.12.~1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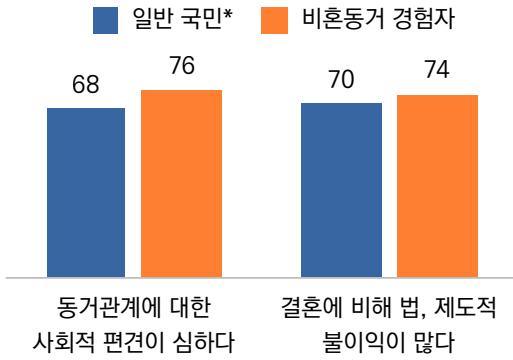
\*5점 척도

\*\*2020년 가족실태조사

# 비혼동거자가 느끼는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해!

- 결혼한 부부와 비교했을 때 비혼동거 가족에 관한 인식은 어떠할까? 비혼동거자와 일반 국민에게 각각 물었다. ‘비혼동거자’의 경우 ‘결혼에 비해 동거관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76%, ‘법, 제도적 불이익 많다’ 74% 등 부정적 인식이 일반 국민 대비 높았다.

[그림] 실제 결혼과 비혼동거 비교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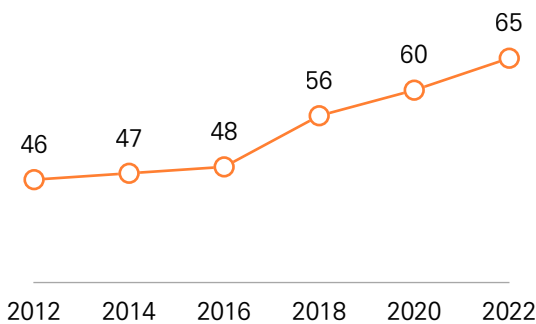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1.05. (만 19~69세의 비혼동거자 또는 경험자 3,007명, 온라인 조사, 2020.10.12.~11.06.)  
 \*일반 국민 인식 조사 : 여성가족부,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1.05. (전국 만 19~69세 1,000명, 전화 조사, 2020.10.26.~1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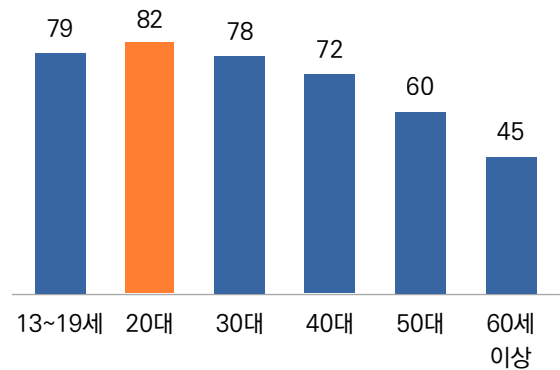
## 03 [비혼동거에 대한 국민 인식] 우리 국민 3명 중 2명, '비혼동거' 찬성!

- 우리 국민의 '비혼동거'에 관한 인식 추이(2012~2022년)를 살펴보았다. 비혼동거에 대한 동의율은 2012년 46%로 2016년(48%)까지는 큰 변동이 없다가 2018년 56%로 급증, 2022년에는 65%로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비혼동거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 비혼동거에 대한 동의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동의율이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의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비혼동거에 대한 동의율 추이 (일반 국민, '매우+약간 동의' 비율\*, %)



[그림] 연령별 비혼동거 동의율 (일반 국민, '매우+약간 동의' 비율\*, 2022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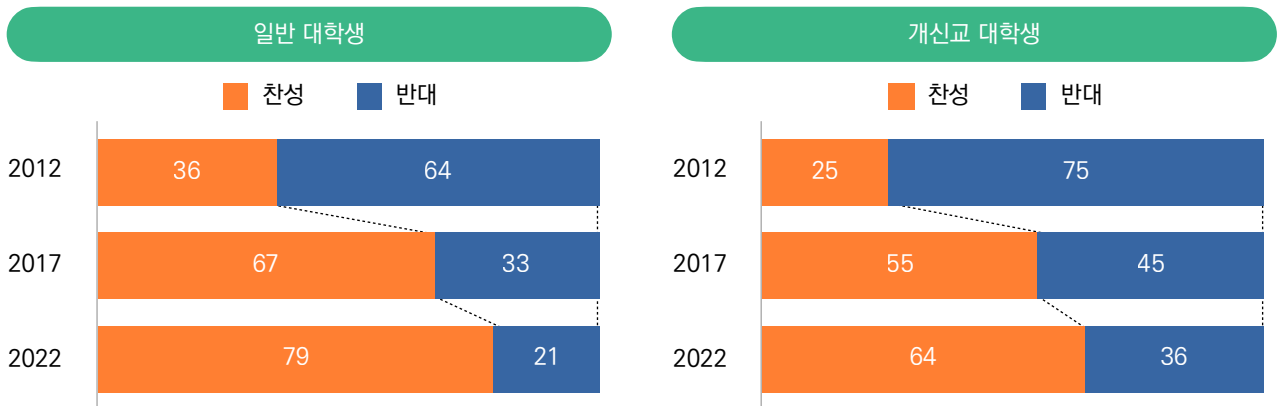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각 해당 연도 사회조사  
 \*4점 척도

# 기독교 대학생 3명 중 2명, ‘비혼동거 찬성’!

- 이번에는 학원복음화협의회의 대학생 인식 관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혼동거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먼저 비혼동거 찬성 비율은 2022년 기준 79%로 대부분의 대학생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 조사 대비 2배 이상 급격히 높아진 수치이다.
- 개신교 대학생의 비혼동거 인식은 어떠할까? 일반 대학생보다는 낮았으나 찬성률이 64%로 3명 중 2명꼴이었으며, 2012년 25%대비 크게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비혼동거에 대한 찬반(‘매우+약간 찬성’ 비율\*, %)



※출처:

2012 : 학원복음화협의회, 2012 한국 대학生の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2012. 10.(전국의 대학교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1,200명, 면접 조사, 2012.05.14.~06.01.)

2017 : 학원복음화협의회, 2017 한국 대학生の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2017. 08.(전국의 대학교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1,200명, 온라인 조사, 2017.07.20.~08.16.)

2022 : 학원복음화협의회, '2022 한국 대학生の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2022.09.29. (전국 대학생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08.17.~08.31.)

\*4점 척도



대중 문화는 사회 현상을 민감하게 반영한다.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2013년 방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혼이 증가하자 ‘우리 이혼했어요’, ‘돌싱글즈’ 등 이혼자가 출연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미디어 속 비혼동거 커플은 2000년대에 들어서 자유롭고 진보적인 라이프스타일의 표현으로 등장하다가, 작년 ‘결혼 말고 동거’라는 비혼동거 커플이 등장하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까지 나왔다. 방송이 시작되었을 때 별다른 사회적 반향이 없었는데, 2011년 공공기관의 기관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거를 용인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는 리포트<sup>1)</sup>가 나왔을 당시 여러 언론의 보도와 가정사역 단체에서의 비난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것과 비교하면 큰 온도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 이유는 비혼동거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도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2022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 중 2명(65%)은 비혼동거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고, 청년의 경우 대부분(81%)이 동의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 최초로 비혼동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에서 가장 큰 주목할 점은 전통적 결혼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비혼동거의 가장 큰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가 꼽혔는데, 이성 간의 함께 있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와 비혼동거를 용인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실천으로 옮겨진 결과이다. 비혼동거의 긍정적인 면으로 ‘미리 살아봄으로 결혼 여부 결정에 도움 된다’가 비혼동거자 85%의 동의를 받았는데, 이 역시 한국 사회의 시대적 상황이 주는 ‘결혼’의 무게가 한층 가벼워졌음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 동거하고 있는 파트너와 결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64%가 ‘있다’고 응답해 상당수의 비혼동거자들이 ‘결혼’을 염두에 둔 동거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주목할 점은 기독교 대학생 역시 비혼동거를 용인하는 사회문화와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원복음화협의회’의 대학생 의식조사에 따르면, 비혼동거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 대학생의 경우 2022년 79%가 찬성해 10년 전 조사 결과 36%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개신교 대학생 역시 2022년 64%의 찬성률로 10년 전 조사 결과 25%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비혼동거에 대해 찬성하는 기독교 대학생의 비율이 일반 대학생과 큰 차이가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 속에 기독교인과 교회는 비혼동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들고, 인간이 그것을 성실히 지키게끔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또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할 만큼 결혼제도의 중요성과 신성함을 말하고 있다. 결혼이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과정이 녹록지 않지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 훈련되는 긴 여정을 통해 부모 자녀 간의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교회는 사회적으로 비혼동거 문화가 왜 확산하는지 생각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또한 교회 내에서 있을 수 있는 비혼동거자를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정과 결핍을 알고 성경적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1) 한국개발연구원,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방향’, 2011.11.16.